

# 현대인의 삶에 나타난 소통의 단절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 미 아 교 수 지 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관 화 학 과

서 호 정

# 인 준 서

서효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원 과정 동안 제작된 본인의 작품 중 석사 학위 청구전의 작품과 그 이후 발전된 작업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 분석한 것이다.

빠르게 변화하면서 외적, 물질적으로 비약적 발전을 하고 있는 현대사회는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단일화된 경제권 안에서 더욱 치열한 무한 경쟁을 벌여 나아가고 있다.

매스 미디어와 통신, 과학문명 발달의 극대화와 현대 사회의 급격한 확장, 복잡성의 가속화는 인간 내면의 의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리고 점점 치열해져 가는 사회 속에서 현대인은 실패에 대한 불안감과 정체성 상실의 문제와 이기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인간소외로 점점 더 불안정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이러한 급속한 발달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는 인공적으로 구축된 도시의 빌딩들과 수많은 상품, 쏟아지는 대중매체의 보편화된 시각적 이미지 속에 고정화 되어버렸고, 오늘날 현대인의 주변 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인의 작품에서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정체성의 상실’, ‘익명성’, ‘소통의 단절’, ‘소외’ 등 일련의 문제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도시’를 바탕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을 재조명하고자 하였다.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정형화된 육면체의 공간으로 표현된 도시와 인체 형상을 결합시킴으로써 도시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은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대중 사회 속의 현대인의 인간상을

고찰해보고 그러한 사고들이 본인의 작품 속에서는 어떠한 방법과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연구하였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II. 작품의 형성 요인 .....	3
1) 현대인의 삶 .....	3
2) 소통의 단절.....	5
III. 작품의 내용과 형식.....	9
1) ‘9to 5’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9
2) 입체 작품.....	9
(1) 인체에 반영된 상징적 의미.....	9
(2) 캐스팅.....	16
3) 평면 작품.....	17
(1) 원형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17
(2) 격자무늬(그리드)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18
(3) 확장된 판의 개념과 표현.....	19
IV. 작품분석.....	23
V. 결론.....	37

참 고 도 판

참 고 문 헌

ABSTRACT

## 작 품 목 록

- [작품1] ‘9 to 5’, 가변크기, 시멘트. 석고 Casting, 철, 넥타이, 함석, 2003.
- [작품2] ‘9 to 5’, 가변크기, 시멘트. 석고 Casting, 철, 넥타이, 함석, 2003.
- [작품3] ‘9 to 5’, 가변크기, 시멘트. 석고 Casting, 철, 넥타이, 함석, 2003.
- [작품4] ‘9 to 5’, 70x70cm(3series),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3.
- [작품5] ‘9 to 5’, 70x70cm(3series),Aluminium, Stainless steel , 시트지, MDF, 2003.
- [작품6] ‘9 to 5’, 70x70cm(3series), Aluminium, Stainless steel , 시트지, MDF, 2003.
- [작품7] ‘9 to 5’, 120x120x5cm,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4.
- [작품8] ‘9 to 5’, 120x120x5cm,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4.
- [작품9] ‘9 to 5’, 120x120x5cm, Embossed work on Stainless steel, steel laser cutting, MDF, 2004.
- [작품10] ‘9 to 5’, 120x120x5cm, Embossed work on Stainless steel, steel laser cutting, MDF, 2004.

## 참 고 목 록

- [도판1] Magdalena Abakanowicz, 「Seated Figures」, burlap와 resin  
으로 만든 18개의 형상들, 104x51x66cm, 1974~79.
- [도판2] Magdalena Abakanowicz, 「Backward seated Figures」,  
bronze, 84x61x74cm, 1992~1993.
- [도판3] Robert Longo, 「도시인」 연작의 전시 장면, 1981,  
뉴욕 메트로픽처스.
- [도판4] Robert Longo, 「Frank」,  
Lithograph, 173x99cm, 1982~1982
- [도판5] George Segal, 「Street Crossing」,  
Bronze with white patina, 182.9x487.7x365.8cm, 1992
- [도판6] George Segal, 「Bus Riders」, Plaster, cotton gauze,  
leather, vinyl, steel and wood, 177.8x107.6x230.4cm, 1962
- [도판7] 정국택, 「TODAY」, 철, 동판, steel, 90x200x200cm, 1997
- [도판8] 구분주, 「미스터 리」, 동, 600x750x200, 1993
- [도판9] 구분주, 「그는」, 철, 동, 800x830x1600, 1999

# I. 서론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던져진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물음,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은 자기인식은 물론 사회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탐구대상이자 목표가 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정보의 양적 증가와 신속한 정보전달, 지구촌 사회의 형성 이라는 긍정적 결과도 있지만, 물질적 발전을 과도하게 추구함에 따라 인간적인 깊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존엄성 경시 풍조, 익명성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정보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한 인격의 침해, 인간성 상실 등 우리의 존재 가치 자체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대량생산되는 산업 제품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고, 인터넷 등 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혜택을 누리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 간접화를 가져왔다.

이처럼 현대사회의 정보화와 대중매체의 발달은 인간에게 문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인간의 사고 및 행동양식까지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인간을 복잡한 사회구조 안에 갇힌 소외 상태로 만들었다. 이런 소외 현상은 정신적 중심의 상실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현대사회의 이러한 부정적 현상을 본인의 사고와 시각으로 해석하고, 익명적 초상인 ‘인간형상’과 도시 공간의 ‘변형’을 통하여 현대 사회 속에서의 삶과 그 속에서 형성되는 소외감, 소통이 단절된 타인과의 관계 등, 다양한 현실을 고찰해보고자 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본문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논문의 II장에서는, 본인의 관심사인 현대사회의 특징과 인간의 소

의 관계를 되짚어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고찰 하며, 더 나아가 본인의 작품을 관객에게 내 보임으로써 소통의 의미, 자아와 사회와의 소통, 작품을 통한 관객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본인의 작품에 나타난 이미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작품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한다. 그리고 20세기의 미술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들을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드러낸 몇몇의 작가들을 살펴봄으로써 본인의 연구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작품에 대한 제작 방법과 작품에 대한 내용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앞으로의 작품 제작에 있어 더욱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 II. 작품의 형성요인

### 1) 현대인의 삶

오늘날의 현대 사회는 정보통신의 혁명과 다양한 매체의 보급과 확산으로 수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가 전달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교류의 기회의 축소로 이어지고 간접경험의 증가와 가상세계를 현실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사회를 유지해나가는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변해가는 기술문명의 뒤편에서 고독과 방황, 상실감 그리고 소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하나의 거대한 사회구조 속에서 그 모태를 파악할 수 있다.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은 지극히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 더욱이 인간의 한계 상황으로 인한 존재에 대한 불안이나 무력감은 인간을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기도 한다. 물론 현대의 인간 사회가 부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문화적 위기의 성격과 인간적 상황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의미로서 ‘소외’와 ‘자아상실’이라는 말이 보편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우리시대의 위험성과 위기의식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소외라는 말은 원래 철학적으로 쓰여 지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이 개념은 철학적인 의미로 보다는 현대사회의 인간상황을 상징화하는 사회적인 개념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sup>1)</sup>

소외라는 개념은 헤겔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소외 개념이 실질적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1950년대 유행한 마르크스 사상과 더불어 실존

---

1)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4, p.17

주의 사상에 이르러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대사회의 특징과 인간적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 프롬<sup>2)</sup>(Erich Fromm 1900~1980)이다. <sup>3)</sup>프롬은 ‘자본주의가 인격에 미치는 영향의 핵심 문제는 소외 현상이다’라고 단정하고, 소외를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 있다.

소외란 인간이 자신의 경험 중에서 자기 자신을 낫선 사람인양 경험하는 양식이다. 소외된 인간은 그 자신으로부터 소원해지고 스스로를 자기중심, 자기 행동의 창출자로 느끼지 않게 되고, 소외된 인간은 타인으로부터 접촉이 끊어져 있듯이 자기 자신과도 접촉이 단절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마치 사물을 대하듯이 하게 된다고 하였다.<sup>4)</sup>

이처럼 소외는 오늘날의 고도화된 사회에서의 불가피한 현상이므로 인간으로 하여금 시대와 사회 흐름 속에서 주체성 상실과 자아상실 이라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현대인은 매스 미디어의 발달로 동일한 정보 속에 노출됨에 따라 거부감 없이 ‘대중’이 되어간다. 개개인의 개성과 인격적 자유를 가지고 있던 개인은 주체성을 상실하고 동일한 정보에 길들여지며 수동적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수동적 인간은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으려하지만, 단절과 고립의 가속화가 되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점점 스스로 소외되어져 가는 것이다.

또한 롤로 메이<sup>5)</sup>(Rollo May, 1909~1994)는 현대인의 정신적 특성을 공허함, 고독, 불안이며,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불안의 경험에 두 가지 표현은 소외감과 공허함에 있다고 하였다.<sup>6)</sup> 즉,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

2)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

3) 이미숙, 『소외 의식의 상징적 표현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1, pp.4~5

4)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pp.37~38.

5) 롤로 메이(Rollo May 1909~1994)-실존분석가. 그는 인간의 창조적 양심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시간과 그 초월의 문제 등을 진지하게 다룸으로써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자아의 발견과 진정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개인이 느끼는 공허함, 무의미함, 고립은 자아 상실로 인한 내적 위기의식과 더불어 불안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소외는 타인은 물론 자신조차도 이질적인 존재로 경험하는 의식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경험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주목하고, 그 속에서 공허함과 인간적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는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하는 도시인을 익명적 초상으로 제시하고, 도시를 상징화하는 공간을 기하학적 형태로 변형시키는 작업 속에서 소외의식을 주관적 해석으로 상징화 하였다.

이와 같은 현대인의 소외는 단순히 인간이 수단이 되어가는 현대적 상황과 정신적 불안감 등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진정 자신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느끼지 못하게 되는 정신적 중심의 상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상호주관적인 공감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현대인들이 자신의 주체성을 상실한 채 획일화, 파편화 되어가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 스스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진정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 2) 소통의 단절

소통은 인간들과 인간들 간에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도적이고 상징적이며 상호작용하는 과정<sup>7)</sup>으로 인간은 세계 안에서 맺어지는 타자와의 관계를 통하여 삶을 지속하는 존재이고, 또 이러한 타인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려는 욕구는 인간이 가진 본질적인 성향 중 하나이다. 타인과 대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타인과의 영혼의 만남이 없다는

6) 롤로 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태동 역, 문예출판사, 1982, pp.7, 35.

7) 강길호, 김현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p.27.

것이고, 그런 만남이 없는 영혼은 견딜 수 없는 공허를 겪어지고 살게 되는 것이다.<sup>8)</sup>

이처럼 인간은 자신을 이해 가능하게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또 이해를 구하려고 하며, 나와 타인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 상호 이해하려고 하는 정서적인 공감의 필요가 존재라 본다.

체계적으로 이론화된 소통을 하버마스<sup>9)</sup>(Jurgen Habermas 1929~)의 의사소통 이론에서도 발견 할 수 있는데, 그는 인간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 주관적인 의사소통으로 이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은 의사소통행위이론으로써 이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 이성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하여 역사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성적 낙관주의를 견지하고 있다.<sup>10)</sup>

인간은 세계 안에서 맺어지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는 존재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도시는 삶을 전반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하는 곳으로 사람과 사람끼리의 교류와 소통의 집합적 통로이자 장소이다.<sup>11)</sup>

이런 사회 속에서 인간에게 소통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개개인만의 한정된 사고 틀 속에서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의 의사소통은 상대적으로 더욱 힘들어져만 가고 있다. 가정이라는 공간에서조차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친구사이, 연인사이, 직장동료사이에서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며, 여기서 오는 단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

8) 한자경, 「자아의 탐색」, 서광사, 1997, p. 236.

9) 하버마스(Jurgen Habermas)-서구 계몽주의 전통을 계승한 독일을 대표하는 철학자이다. 1929년 6월 서독의 듀셀도르프에서 출생하여 1961년 브르그에서 대학교수자격을 획득하고 그해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교수로 취임한 후 비판이론으로 알려진 프랑크푸르트학파의 계승자로서 명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10) 사회와 철학 연구회,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2001, pp.183-201

11)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p.170.

한편, 현대사회에는 디지털 미디어와 통신기기 등 정보화 시대의 매체 발달을 이용하여 소통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소통의 편리함과 용이함을 위하여 만들어진 이러한 매체들은 오히려 현대인들을 더욱더 구속하고 있다.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확대될수록 의사소통의 간접화로 인해 오히려 소통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또한 혁신적인 매체의 발달은 정보의 집중과 독점현상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소수의 정보독점자들과 여기에서 소외된 계층간의 갈등과 대립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개인의 단절감과 소외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보화 시대의 현실 속에 인간의 소통문제에 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연구자의 작업은 이러한 소통의 부재와 단절에서 오는 사회 현상들을 산업화된 육면체의 공간속에 인간을 결합시킴으로써 도시공간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고독하고 소외된 인간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일례로, [작품4.5.6] , [작품7.8] 과 [작품9.10] 에서는 각각 스테인레스와 비취지는 시트지를 사용하여, 작품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형상이 관람자가 화면 속에 비취진 자신의 모습이 되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작품을 통해 또 다른 구속관계가 만들어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도시 환경과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비슷한 모습으로 획일화되어 상호교류가 없는 개인주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현상들은 타인의 모습이 아니라, 표피적인 소통을 추구하는 우리들의 모습 그 자체임을 담고자 한 것이다.

본인의 작업은 관객과의 소통의 일환으로 관람자 스스로 작품에 개입할 수 있게 하였고, 단순한 시각화의 기능이 아닌 작품과 관람자의 소통을 통해 작가와 관람자가 공감할 수 있으며, 현실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비판의식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였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려면 다른 세계와의 관계를 통한 존재의 재발견과 사고 체계의 확장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많은 매체들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소통을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도구들이 많아졌지만 현대인들은 사람들과 소통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둘러싸여 있게 되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의 인간관계에서는 소외감과 존재의 부재를 더 느낄 수밖에 없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가 세계에 대하여 좀더 개방된 존재로 타인을 이해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타인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내재하는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화와 타협에 의해 이루어지는 상호 주관적인 관계를 가져야한다. 또한, 거기에서 합의되어 나온 정당하고 보편적인 요구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Ⅲ. 작품의 내용과 형식

#### 1) '9 to 5'에 나타난 난 상징적 의미

미술은 조형언어를 통하여 관객과 작가사이에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데 관객은 미술작품을 보면서 작품 속에 내재된 작가의 생각과 의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상징은 하나의 관념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물을 통하여 나타내는 방식<sup>12)</sup>으로 많은 예술가들은 그림이라는 상징적 이미지를 통해 작가의 내면을 전달 하고자 하였다. 작가는 시각요소에 담긴 함의를 전달함으로써 작가 자신의 사고를 외부세계와 소통시킬 수 있고 작가의 입장을 관객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속의 시각적 이미지는 바로 상징적인 매개물이 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본인은 인간이 만들어낸 현대사회 속에서, 인간 스스로가 처한 모습을 익명화된 사람의 '인간형상'과 도시공간을 '기하학적 형태'로의 제시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의 작업의 제목인 '9 to 5'에 숫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일차적으로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라는 숫자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매일 반복되는 삶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표현 한 것이다.

#### 2) 입체작품

##### (1)인체에 반영된 상징적 의미

---

12) A.야페, 「미술과 상징」, 열화당, 1995, p.91.

20세기 인간의 모습은 어느 시대보다 독특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해석되고 표현되어지며 미술 속에 드러났다.

이러한 시대적 반영에 대해 아놀드 하우스는 ‘인간의 사고란 상황에 대한 의식적인 검토나 비현실적인 환상 보다는 인간이 처한 사회적 상황으로부터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이론을 펼침으로써 20세기 미술의 사회성을 말해주고 있다.<sup>13)</sup>

현대라고 할 수 있는 20세기의 미술 속에서 그 시대적 상황들을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드러낸 몇몇의 작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급진적으로 발달한 대중 사회의 황금만능주의와 물질문명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정신적 위기감과 고독, 허무 등은 예술의 주제가 되었다. 대량생산된 소비품처럼 획일화 되어가면서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대중의 모습은 정신적 위기감을 형성하였고, 이러한 대중의 정신적, 심리적 갈등과 대립, 긴장, 그리고 사회 부조리에 대한 평범한 사람들의 애환, 물질 만능의 사회구조와 급진적 과학의 발달로 피폐되어 가는 정신성과 자아의식은 미술의 주요한 테마가 되었다. 그리하여 오늘날까지 많은 예술가들은 대중소비 사회에서 억눌린 인간의 정신적 긴장감과 고독 등을 주제로 작품을 하였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 속에서 대중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독과 소외를 표현해 온 조각가로 조지시겔(George Segal, 1924~2000)을 들 수 있다. 시겔은 의료용 석고 붕대를 가지고 실물 그대로 본뜬 석고와 실제 오브제를 사용하여 미국의 익명적 중류층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그들의 욕망을 표현 하였다. 그의 작품은 산업사회의 발전을 극명히 보여주는 도시의 풍경을 나타내고 있다. 규격화된 산업 사회의 상징인 주유소와 상업적 대형 광고판, 레스토랑과 모텔, 지하철, 극장, 세탁소, 간이식

---

13) F.프로시나 & C.헤리슨, 『현대 회화의 원리』, 최기득 역, 미진사, op. cit, 1989, p.236

당, 거리 등 도시의 평범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상황 속에 내던져진 인간의 소외되고 고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의 이름 없는 존재들인 시민들의 일상과 그 속에 존재하는 무기력과 권태, 군중속의 고독 등을 포착하고 있다.

[도판 6.7] 에 서로 무관심하게 표정 없이 서 있는 사람들, 인물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다른 곳을 응시하는 시선 등 그의 작품 속 인물상들은 살아있는 듯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모르게 유령 같고, 비개성적인 모습은 도시생활의 소외상을 더욱 크게 느껴지게 한다.<sup>14)</sup>

본인의 작품과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익명적 도시인들의 모습을 작품화 한다는 점에서 본인의 작품은 로버트 롱고(Robert Longo 1953~)와도 비교할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매개체를 통해 롱고가 일관적으로 탐구한 것은 도시의 삶과 그 문화가 인간에게 지우는 부담과 고통,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각종 제도적 장치가 지니는 억압적 성격을 폭로하는 것이다.

[도판3] 의 롱고의 ‘도시인’ 시리즈는 그의 대부분의 작업들이 그렇듯이 재현된 사람의 형상이 실제 사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보는 이를 압도한다. [도판3.4] 의 그가 표현한 춤추는 듯, 스러질 듯한 사람들의 모습은 나일수도 너일 수도 있다. 이것은 역동적인 포즈 때문에 가려진 얼굴과 그가 즐겨 사용하는 흰색의 익명적 공간으로 인해 더욱 가능해진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상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된 이미지로 표현된 그의 작품은 보는 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sup>15)</sup>

‘도시인’의 연작의 이미지는 이렇듯 그 지시내용이 모호한 기호이지만 등장인물들이 죽음에 휘말려 있든 황홀경에 휘말려 있든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음은 분명하게 보인다. 생략되고 표현되지 않아

14) 최태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p.134

15) 권소진, 「도시이미지를 통한 익명성의 표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p.17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이 힘은 인물들로 하여금 몸부림치게 만들고 빠져 나오려고 용쓰게 만들고 있다. 이 힘은 바로 우리 시대의 사회와 문화가 개개인들에게 가하는 제도적 억압, 인물들이 입고 있는 옷이 환기시키는 각 개인들의 사회적 지위와 그에 따른 역할 그리고 그것이 부과하는 부담, 도시생활의 고통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16)</sup>

[도판1]의 마그달레나 아바카노비츠 (Magdalena Abakanowicz)는 인간과 자연의 유기적인 관계에 관심을 두고, 인체와 인체를 닮은 현상에 주목 하였다.

아바카노비츠에게 인체는 부피가 아니라 표면으로 인식되며 골격과 근육의 힘과 운동 보다는 혈관이나 신경 조직의 감각기관이 갖는 의미가 삶속의 인간관계나 갈등, 감정 등의 소통구조로서 중요시 되었다.

[도판1]의<Seated Figures>는 머리와 목, 손이 제거된 앞면의 일부가 앉아 있는 형태로 신체의 일부를 제거함에 따라 인체의 운동감이나 예리함이 사라지고, 정적이며, 복잡성이 없는 단순하게 앉은 모습이 표현되어 있다.

[도판2]는 동일한 제작 방법을 취하였으나<Seated Figures>와 반대로 앞면이 비어 있으며 등이 굽어 있고, 다리까지 제거된 채 앉아 있는 형상으로 개성과 운동감을 상실한 채 동일화한 모습으로 군집화 하였다. 아바카노비츠는 이렇게 생략된 신체를 통해서 항변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sup>17)</sup>

[도판7]의 정국택의 작품은 현대 도시화의 산물인 건물과 서류가방, 핸드폰, 넥타이를 등장시켜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셀러리맨의 모습을 현대인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풍자와 서술적 묘사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상징적인 문명 재료인 철과 스틸을 통해 인공적인 현실과 단

16) 김경운, 「하이퍼리얼리티, 도시의 삶, 그리고 텍스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pp.ii,18

17) 임모나, 「Magdalena Abakanowicz의 작품 연구」, 강릉대: 석사학위논문, 2002, pp.1~24

순화, 획일화시킨 기계적인 인물형상으로 현대인의 익명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고 했다.

[도판8.9]의 구본주(1967~2003)는 일상 풍경 속에서 소외되고 황폐화한 현대인의 모습을 인체의 풍자와 왜곡을 통해 소시민들의 꿈과 희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업은 자본주의 사회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요구하는 조건의 부당함을 인식하고도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실의 객관적인 반영이라기보다는 풍자와 왜곡으로 웃음을 자아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장된 왜곡과 상황의 연출로 보는 이로 하여금 현대인이 처한 현실이 더 절실한 상황으로 다가온다.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의 이면에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위기와 갈등, 좌절과 긴장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나아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비애와 소외를 이야기 했다.<sup>18)</sup>

현대 사회의 도시는 매우 역동적이고 다양한 변화를 창출해 내는 활력이 넘치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의 장소이기도 하다.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은 경쟁 사회 속에서 경쟁과 도전을 반복 하면서 점차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 가고 있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스스로를 규격화된 일상적 틀에 맞춰가며 결국엔 익명성에 의존하게 된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1.2.3]에 시멘트와 석고로 Casting한 사람 형상은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일종의 동일화 되어진 현대인을 나타내며, 재현과 복제를 통해 현대인의 주체성 없는 삶의 모습을 대변 하였다.

작품속의 양복(유니폼)은 자신을 포장하는 것으로 대외적으로는 직권

---

18) 방성호,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을 표현한 이미지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4, p.8  
<http://www.kcaf.or.kr/art500/gubonju/main.htm>

을 표시하며, 내부적으로는 일체감을 확보하기 위해 착용하는 의복이다. 유니폼은 집단 구성원의 상징으로 한사람이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상징함으로써, 개인의 개성을 억제시키고 집단에 귀속되기를 요구하고, 집단의식을 형성하는 바탕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 집단의식이 상징성을 내포하게 되면 이 상징성은 소속 집단의 이념과 개성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유니폼은 사회 속에서 개개인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체에 소속되어 일정한 규칙 속에 적응해 나가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익명성을 보장받게 된다.<sup>19)</sup>

【작품1.2.3】에서는 이런 익명성을 가진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의 두상은 만들지 않았다. 복제된 사람은 TV, 광고, 인터넷과 획일적이고 반복되는 인쇄 이미지 등 자극적인 시각매체의 이미지 환경 속에서 반복적인 암시를 무의식중에 받게 되어 개성 없이 획일화됨으로써 ‘대중’이 되어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본인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 얼굴에 그 사람의 정체성이 가장 잘 표현된다고 보았고, 그런 얼굴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정체성을 상실한 우리들의 모습을 나타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작품1.2.3】에 보이는 철로 만든 좌대는 도시속의 건물을 표현한 것으로 소외의식과 현대인의 불안함을 화면 속에서 직접적인 분위기로 감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설치된 상태에서 봤을 때 획일화된 도시공간과 반복적인 일상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차가운 철을 사용하여 높은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도시 건물의 형태를 부각시켰고, 이것은 또 위에서 내려다봄으로써 계층의 우월성과 언제든지 도태 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조형적으로 시각적인 다양성을 보여주기 위해 좌대의 높낮이를 다르

---

19) <유니폼을 통한 동시대 사회 읽기>,Cover Story展 전시도록, 2004, p.5

게 하였다.

도시인에게 바깥 거리는 어쩌면 제자리를 찾을 수 없는 불안정한 공간일 수밖에 없다. 본인의 작업에서 건물 이미지는 벽면을 만들지 않고 철로 얇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건물의 빈 공간을 통해 현대 사회의 불안정함과 긴장감을 나타내고자한 것이다.

이렇게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항상 불안하고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인체 형상은 불완전한 좌대위에 앉아 있는 형상으로 표현하였다.

본인의 작품에서 인체는 동일하게 앉아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획일화되고 규격화된 현대인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인체의 정밀한 표현이 목적이 아니라 산업화의 발달과 물질문명에 의한 인간성의 상실, 소외, 경쟁 사회 속의 이기주의라는 사회 개념들을 인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나타내고자 함이 목적으로 상징적의미로서 획일화된 구조를 단순하게 하고 존재나 본질에 대해서 상징화하여 해석하였다.

그리고 획일적 반복을 통해 통일성과 함께 강조된 효과를 주고 비례, 방향 등과 관계를 맺으면서 강조와 조화를 수반한다.<sup>20)</sup> 일정한 공간에서 25점의 작품을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하여 개별 작품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확장 증폭 시킨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

[작품1.2.3] 에서 사람은 Casting을 통해 복제하여 동일한 이미지로 보여 졌지만 넥타이는 다양한 무늬와 색깔로 표현하여 무채색의 사람형상과 밝은 넥타이의 색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화려한 의상이나 걸모습 등의 외형에 가려진 현대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은 일상에서 흔히 보여 지고 또 접하고 있는 도시적 이미지에 주목하고, 특히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 건축물을 선택해 표

---

20) 최병상, 『조형』, 창미서관, 1993, p. 106

현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과 도시 구조물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문제들을 다루고자 하였다.

## (2) 캐스팅

본인의 작업에서는 자칫 기계적이고 삭막한 이미지로 부각되는 시멘트와 철, 그리고 석고를 이용하여 현대인을 표현하여 현대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하려고 하였다

[작품1.2.3] Casting은 일정한 형태를 그대로 복제하거나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형틀로써 다수의 복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으로 획일화 되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복제 방식을 이용했다. 먼저 사람의 형상은 흙으로 작업을 한 후 석고로 캐스팅을 하고, 똑같은 이미지로 여러 개를 복제를 하기위해서, 그 위에 다시 실리콘으로 캐스팅을 하여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회색빛의 차가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시멘트와 석고를 이용하였는데 석고를 사용함으로써 굳는 시간을 단축 시켰다.

[작품1.2.3] 에서 Casting에 사용한 시멘트와 석고는 재료의 물질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재료적 질감을 이용해 콘크리트 덩어리의 아파트로 대변되는 현대 도시의 느낌을 내포하고 있다.

좌대는 철 각봉을 용접하여 육면체를 만들었는데 좌대의 형태를 의도적으로 불안정하게 제작 하였으며, Casting한 사람을 올리기 위해서 밑바닥과 윗면은 철판을 사용하여 무게를 주었다. 작품에서의 좌대는 철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용접을 한 후 검정색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차갑고 삭막한 도시풍경을 상징하였다. 그리고 넥타이는 기존의 넥타이를 잘라 작품 크기에 맞춰서 작게 만들었고 그 안에는 함석을 넣어서 구부릴 수 있게 하였다.

이 작품에서는 Casting의 방법은 굳었을 때 그 시간성을 상실시켜 정지된 것 같은 시간을 연출하였는데, 이것은 현대인의 일상화되고 반복된 시간과 획일화된 변화 없는 하루를 의미한다.

### 3) 평면작품

#### (1) 원형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급속히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현대인은 텅 비어 있다는 공허감을 안고 때로는 극심한 무력감에 빠진 채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다. 현대인이 공허감을 느끼거나 무감각한 상태가 된 것은 우리가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의 생활이란 그야말로 공허한 생활로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근무처를 향해 같은 버스를 타고, 회사에서 천편일률적인 일을 한다.<sup>21)</sup>

[작품4.5.6] 과 [작품7.8.] , [작품9.10] 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인 원은 시간에 쫓기며 틀에 맞춰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한 것이다. 원의 형태에 현대인의 모습을 연관시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표현함으로써 구속을 의미하게 하였다. 그리고 한정되지 않은 공간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존재의 모호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와 같이 도시를 소비화, 기계화, 대중화된 현대사회의 인간 소외현상과 인간의 익명성을 담아내기 위한 공간으로 선택하였다.

외형적으로 물질적 풍요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현대인의 삶은 윤택해졌지만, 내면적으로는 반복적이고 기계화된 삶으로 인해 항상 소외감과 불안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런 도시를 살아가는 인간의 형상으로 소외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표현함으로써, 현대 환경 속에서 적

---

21) 롤로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태동 역, 문예출판사, 1982, p.14

응해 나가야만 하는 인간상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 (2) 격자무늬(그리드)에 나타난 상징적 의미

새로운 물질들이 일상생활에 열어놓은 무한한 전망을 넘어서 재료의 ‘감각’을 바꾸어 놓았고, 이런 재료들은 보다 다양하고 다의적인 현상과 표현을 낳고 있다.<sup>22)</sup>

본인의 작품에는 시멘트, 석고, 스테인레스, 철, 시트지 등 대량생산된 재료가 쓰여 졌는데 이것은 산업화 이후 대중들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 속의 인위적이고 합성된 재료들이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물성을 사용함으로써 주제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작품4.5.6] , [작품7.8] , [작품9.10] 은 단순한 실루엣 형태의 이미지가 등장하며, 이는 소외되고 획일화된 삶을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이 작업에서 주된 조형적 요소는 기하학적 형태와 공간이다.

작품에 기하학적 형태는 일상적 도시 풍경 속에서 흔히 보여 지는 빌딩, 아파트 등과 같은 건물의 형태와 계단, 벽 등을 단순화시켜 표현한 것으로 화면 속에 채워진 기하학적 공간은 구속의 의미로 나타내고자한 것이다. 기하학형태 하나하나를 사람들에게 지워진 틀로, 이것은 또한 틀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나타내며, 자신만의 공간에서 홀로 있는 모습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도시 속에서의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기도 하다. 즉, 본인의 작품 속의 공간의 기하학적 형태는 도시속의 건물들과 같이 폐쇄적이고 단절된 물리적 또는 정신적 공간으로 이 작품에서는 기하학적 공간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인간을 소

---

22) 장 보드리야르, 「사물의 체계」, 배영달 역, 백의, 2000, p.62

외시킨 획일적이고 비인간적인 배타적 공간을 표현하고자 했다.

“공간은 집단적 삶이 가지는 모든 형태의 근본”<sup>23)</sup> 이라는 푸코 (Michel Paul Foucault, 1926~1984)의 말처럼 도시는 인간이 만든 가장 크고 복합적인 구성물이면서 동시에 확장된 의미의 생활영역을 포함한다. 도시에는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종류의 요구와 가치체계가 공존하는 곳으로, 도시라는 공간은 수많은 사람들과 그 집단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층위의 갈등과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sup>24)</sup>

[작품4.5.6] , [작품7.8] [작품9.10] 에서 인간의 형상은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관람자의 모습이 비춰지게 함으로써 그 형상들은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하고, 타인을 의미하기도 한다.

[작품1.2.3] 은 두상을 생략함으로써 획일화와 익명성을 표현하던 단계에서 이 작품에서는 세부 묘사는 생략하고 단순한 실루엣 형태로 사람의 모습을 비춰지게 만들었다. 비춰진 이미지는 본인의 모습에서 출발하지만 나아가 누구나 소외된 현대인임일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삶의 방식이 개인화되는 경향을 띠게 됨으로써 인간의 사고 또한 개인화 되어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본인은 사물에 투영시킨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 관객들이 점차 단절되어가는 인간의 내면을 엿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본인은 이 작업에서 도시 건축물의 형태에서 느낄 수 있는 이미지를 상징적으로 들어내어 그것을 인간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제시하고자 하였고, 화면에서 나타나는 도시의 형태를 통해 산업 사회의 발달로 생성된 문제들에 대해 환기를 갖도록 의도하고 있다.

---

23) 최윤경,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 공간」, 시공문화사, 2003, p.15 재인용

24) Ibid, p.38

### (3) 확장된 판의 개념과 표현

판화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실험적 성향의 작업이 90년에 들어서 다양한 매체와 물질성, 뉴미디어와 설치미술이 강세를 보이기 시작함으로써 판화도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거나 아예 새로운 미디어 자체를 판화 개념으로 포함시키는 경향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sup>25)</sup>

이런 시점에서 판화의 본질적인 논란은 분분하지만 판화의 전통적인 개념은 평면성, 간접성, 복수성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이것은 판화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회화, 조각, 사진, 인쇄매체 등 이미지를 언급하는 가능한 모든 매체로 의미와 표현이 증폭되고 있다.

판을 매개로한 간접적인 표현이 판화의 전통적인 개념이라면 간접성, 혹은 간접적인 것에 주목하는 것이 판화의 확장 개념이다.<sup>26)</sup>

판화의 확장 개념이란, 특정 이미지를 ‘찍어낸다’, ‘전사한다’ 등의 판화의 개념 자체의 해석과 이해에 주목하고,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체의 매체를 판화의 범주로 지칭한다.

이러한 판 개념의 확대는 컴퓨터 프린트, 사진, 영상, 복사, 캐스팅, 홀로그램, 팩스, 인쇄, 몰딩작업 등 다채로운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판화 작업의 개념에 대한 해석을 작업에 적용한 예로써 판화의 대한 정서적 측면 보다는 개념적 성향이 강하다.

판화의 개념은 이렇듯이 판화의 기본 개념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한, 일체의 기성품 역시 판화의 한 형식으로 간주되고, 현대이후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그 산물인 카피아트(Copy Art, 복사미술)와 리프로덕션(Reproduction, 복제미술),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아트 (Computer Graphic Art)를 포함하고, 심지어 기성오브제의 가감없는 차용과 단순히 부분적으로 판화 기법을 차용할 뿐인 페인팅까지도 그 범주에 포괄한

25) 박남신, 『한국 현대 판화사』, 재원, 2002, p.201

26) 고충환, <판화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월간미술, 1998년 3월호, p.57

다.27)

이처럼 오늘날 본격적인 정보 사회를 맞이하면서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과 그와의 적극적인 접목을 피하고 있는 소위 현대미술 속에서 관화의 개념도 급속히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처럼 본인의 작업 또한 컴퓨터와 새로운 재료를 이용한 확장된 개념의 판으로 볼 수 있다. 재료는 단순히 표현 매체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개념을 포함한 어떠한 형상을 좀 더 효과적이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준다.

산업적이고 인공적인 도시공간은 스테인레스와 알루미늄과 시트지를 이용해 차갑게 표현되었으며 그러한 공간속에 직선과 인체의 형상을 통해 이질적인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본인은 일상에서 흔히 보여 지고 또 접하고 있는 도시적 이미지에 주목하고, 특히 인간생활과 가장 밀접한 도시 건축물을 선택해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다. 흔히 ‘도시’ 라고 할 때 그 형상에 있어서 전달되는 정서는 차가움을 포함한 기하학적 형태의 구조로 떠올리게 된다.

[작품4.5.6] , [작품7.8] [작품9.10] 의 재질에서 보여지는 차갑고 딱딱한 느낌은 산업화된 이미지를 쉽게 드러냄으로써, 보다 차갑게 규격화된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소외 심리를 잘 표현할 수 있다. 작품 [작품4.5.6] , [작품7.8] 은 동일한 제작 방법으로 알루미늄판을 레이저 커팅으로 자른 다음 그 위의 기하학적 형태는 컴퓨터로 일러스트 작업을 통해 제단된 시트지를 이용해 붙였다. 사람의 형상 또한 일러스트로 작업을 한 후 역시 레이저 커팅을 하였는데, 사람은 잘 비취지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레스 중에서 슈퍼밀러<sup>28)</sup>를 사용 하였다. 작품

---

27) 고충환, <현대관화의 개념과 정체성>, 미술세계, 1997년 9월호, pp.30~31

28) 스테인레스는 재질에 따라 4가지로 구분 된다. 완전 무광의 투비판, 무광의 헤어라인, 비취지는 포리싱, 거울처럼 비취지는 슈퍼밀러로 나뉜다.

[작품4.5.6] 은 측면으로 설치하여 좌. 우에서도 작품이 보이게 하였는데 스테인레스에 양 옆으로 구멍을 4개 뚫은 후 측면의 스테인레스와 용접을 하여 벽면에 고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작품9.10] 에 스테인레스와 사람형상도 레이저컷팅을 이용해 자르고, 작품 속에 기하학적 형태는 컴퓨터로 일러스트 작업을 한 후 부식할 면을 제외한 부분에 시트지를 이용해 붙이고, 나머지 면은 부식을 하여 판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 측면은 유광 처리한 스테인레스로 두께를 주었고, 둥글게 하기위해서 벤딩을 하였다.

#### IV. 작품분석

[작품1, 2, 3] 9 to 5

도시는 문명이 발달될수록 비슷한 형상으로 점점 획일화되어가고 있다. 사람들은 아침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자신의 건물에서 나와 다른 건물 속으로 들어가며, 같은 일을 반복하고, 저녁이 되면 건물에서 빠져나가 다시 다른 건물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개개인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 가치의 기준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틀 속에서 반복적인 생활을 하며 일정한 규칙 속에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일 것이다.

사람들은 개개인마다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그 속의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나가며, 이런 현실 속에서 점점 더 획일화되고 규격화 되어가는 현대인을 나타낸 것이다.

이런 현대인의 몰개성과 획일화된 성향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속 사람은 얼굴 형상을 없게 하였고, 모두가 한 방향으로 앉아 있게 설치하였다.



[작품1] 9 to 5, 가변크기, 시멘트. 석고 Casting, 철, 2003



【작품2】 9 to 5, 가변크기, 시멘트. 석고 Casting, 철, 2003



[작품3] 9 to 5, 가변크기, 시멘트. 석고 Casting, 철, 2003

[작품4, 5, 6] 9 to 5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도시의 이미지를 소재로 한 첫 번째 작업으로, 건물모양을 변형한 격자무늬는 획일화된 도시공간과 반복적인 일상을 나타낸 것이다. 작품속의 인물은 서로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존재 하지만 시선은 만나지 못하게 하여 외부 세계와 단절되고 소외된 주변인의 존재로 표현한 것이다.

원형의 틀 속에 계속되는 격자무늬의 이미지는 사회의 틀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 끈임 없이 다르게 규정되는 본인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 작품은 3개의 시리즈로 같은 이미지를 앞, 뒤로 표현하여 벽면에 일정한 거리를 주어 측면으로 설치하였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품 속에 들어갔을 때 두 방향에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지게 하였다. 이것은 나와 우리들의 모습으로 항상 같은 것을 맴도는 듯한 반복적인 일상생활에서 현실 밖을 꿈꾸지만, 그 것은 한낱 꿈으로 끝날 뿐, 사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현대인을 표현한 것이다.



[작품4] 9 to 5, 70x70cm(3series),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3.



[작품5] 9 to 5, 70x70cm(3series),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3.



[작품6] 9 to 5, 70x70cm(3series),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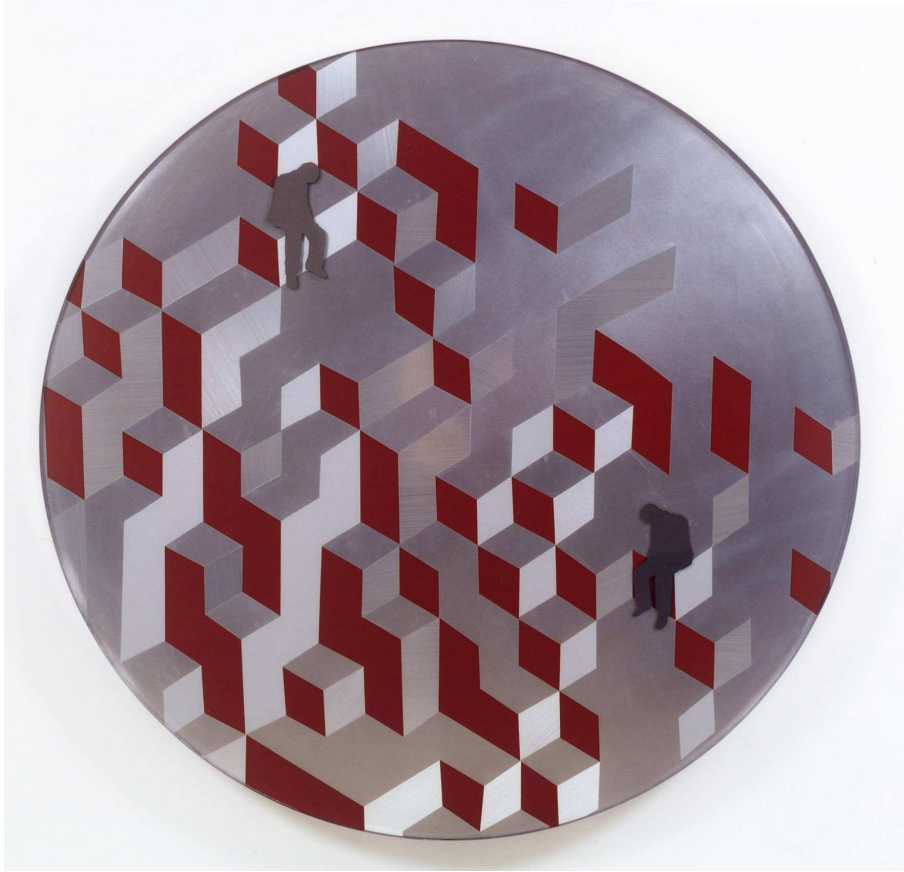
[작품7, 8] 9 to 5

이 작품은 [작품4.5.6] 의 두 번째 연계 작품으로 공간의 크기가 확장되고 그 안에 놓여진 사람의 형상과 기하학적 분할면적을 제거하여 이전의 작품보다 단순화시킨 것이다. 획일화되고 단순화된 사회 구조의 변화를 격자무늬의 틀로 표현하여 도시적 이미지를 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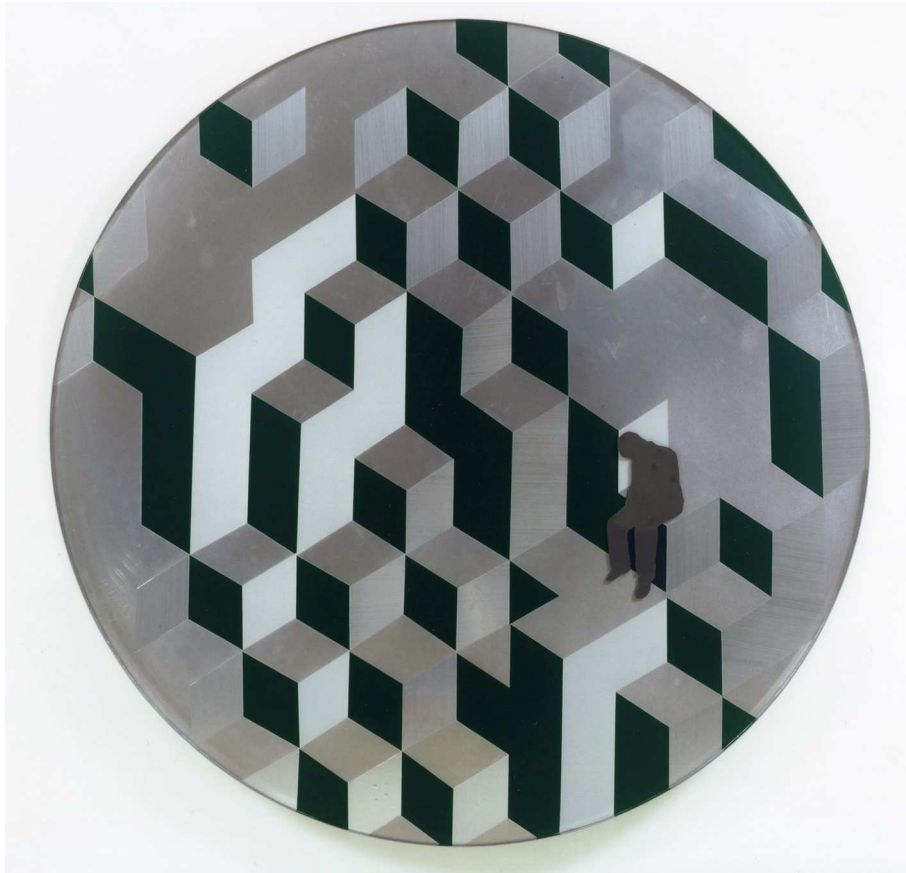
작품의 바탕이 되는 알루미늄은 회색빛의 차가운 도시를 나타낸 것으로 화면 내에서 구조적인 요소로 전체의 배경이 되고, 도시구조의 형태를 부각시키기 위해 경계선들은 서로 다른 밝기와 색채를 사용해서 구별하였다.

또 이 작품 속의 두 인물은 대각선으로 대칭된 위치에 놓여져 있는데, 이것은 타인과 공존하면서 때론 대립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을 나타낸 것이고, 서로간의 무관심과 대화의 단절에서 비롯되는 고독감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형태의 반복과 단일성을 가지게 해서 시각적 질서를 주었고, 화면의 외부 공간으로 무한히 지속될 것 같은 확장효과를 가져오게 하였다.



[작품7] 9 to 5, 120x120x5cm,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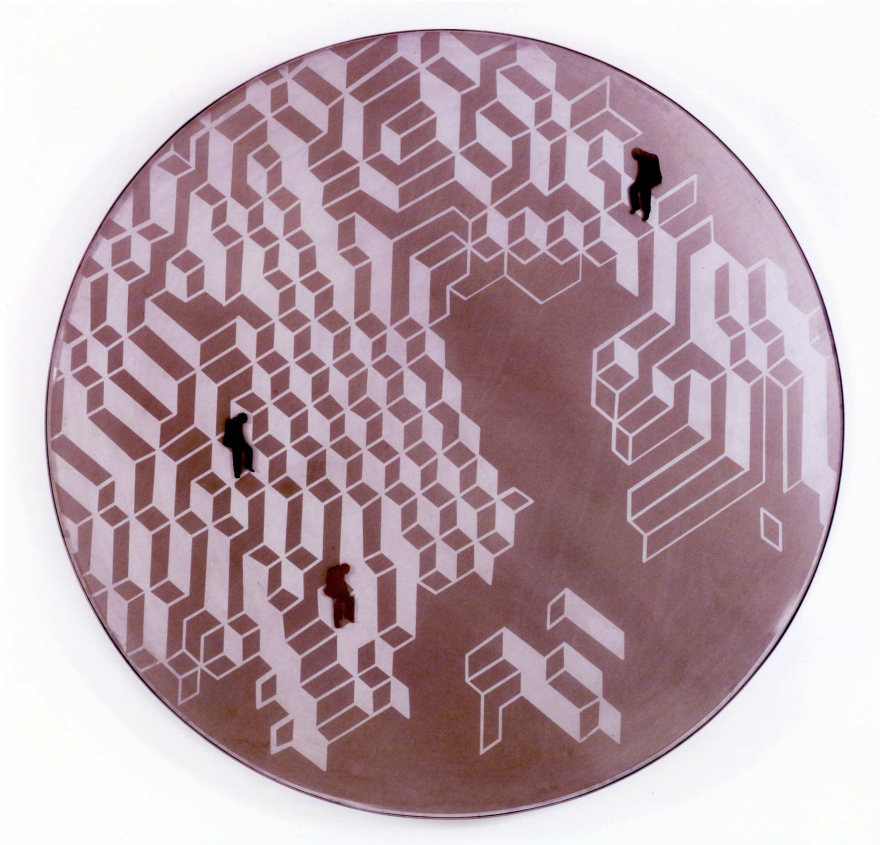


[작품8] 9 to 5, 120x120x5cm, Aluminium, Stainless steel, 시트지, MDF, 2004.

[작품9,10] 9 to 5

문명의 발달로 인간은 혼자서도 살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것은 역설적으로 혼자만의 공간으로 갇혀버리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도시에 있어서 건물은 필연적인 생활공간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외부와 단절될 수 있는 고립의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이처럼 본인의 작품에서 기하학적 공간에 인물을 포함하여, 사람 사이의 상호소통이 단절상황과 개인의 고립 상황을 시각화하였고, 이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으로서 현실적 의미를 지니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갑고 딱딱한 스테인레스를 재료로 이용하여 주제적 측면을 부각 시켰다. 작품 속에 사람의 실루엣은 관람자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절되고 소외되어 보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와 우리들의 모습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인물의 실루엣을 통해 현대 사회가 갖는 문제에 접근 하고자 하였다.



【작품9】 9 to 5, 120x120x5cm, Embossed work on  
Stainless steel, steel laser cutting, MDF, 2004.



[작품10] 9 to 5, 120x120x5cm, Embossed work on  
Stainless steel, steel laser cutting, MDF, 2004.

### Ⅲ. 결 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 정보화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과 윤택함을 가져다주었으며, 기계의 자동화로 인한 대량생산체제는 물질적 풍요로움 마저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점점 기계화 , 대량화, 대중화, 정보화되면서 인간은 점점 사회조직 속에서 주체가 아닌 부속적인 존재로 전락하였고, 대중 속에 묻혀 주체성을 잃어가고 익명성을 띄게 됨에 따라서 현대인들은 공허함, 고독 불안을 느끼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과 동일성을 추구하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 하는 경향을 띄게 된다. 그러나 그로 인해 인간은 결국 스스로 자신으로부터 점점 소외되어져 가는 것이다.

본인은 사회생활에서 얻은 여러 가지 경험과 지각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현대인이 직면한 문제를 작업의 주제로 선택하여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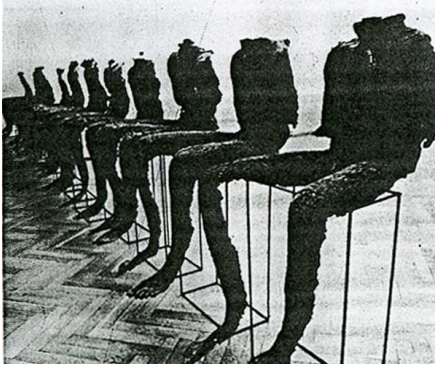
도시에서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에 주목하고,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하는 도시인을 익명적 초상으로 제시하였고, 도시를 상징화하는 공간을 기하학적 형태로 변형시켜 작업 속에서 본인의 주제인 소외의식을 주관적 해석으로 상징화하였다.

예술은 동시대적 특성을 지니며 단순한 시각적 산물이 아닌 그 시대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한다는 말처럼 본인은 작품에 대한 끊임없는 사고와 표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그들의 내면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와 더불어, 무엇보다도 본인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획일화된 이 시대에 자기가 가진 개성과 참된 자아를 바로 발견하여 주체적인 삶을 살고, 세계에 대하여 개방된 존재로서 타인과의 상호 주관적인 소통을 하기 바란다.

앞으로 작업에서 작가와 관람자의 단순한 의미에서의 소통을 넘어서

다양한 접근을 유도하려는 적극적 소통으로 관객과 작품과 작가와의 서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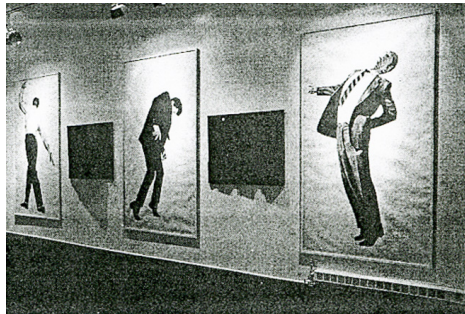
## 참 고 도 판



[도판1] Magdalena Abakanowicz,  
「Seated Figures」, burlap와 resin 으로  
만든 18개의 형상들, 104x51x66cm, 1974~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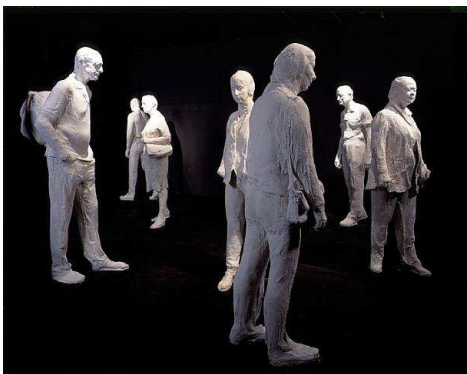
[도판2] Magdalena Abakanowicz,  
「Backward seated Figures」,  
bronze, 84x61x74cm, 1992~1993.



[도판3] Robert Longo,  
「도시인」 연작의 전시 장면,  
1981, 뉴욕 메트로픽처스.



[도판4] Robert Longo  
「Frank」, Lithograph,  
173x99cm, 1982~1982.



[도판5] George Segal, 「Street Crossing」,  
Bronze with white patina,  
182.9x487.7x365.8cm, 1992.



[도판6] George Segal, 「Bus Riders」,  
Plaster, cotton gauze, leather, vinyl,  
steel and wood, 177.8x107.6x230.4cm,  
1962.



[도판7] 정국택, 「TODAY」, 철, 동판, steel, 90x200x200cm, 1997



[도판8] 구본주, 「미스터리」, 동, 600x750x200, 1993.



[도판9] 구본주, 「그는」, 철, 동, 800x830x1600, 1999.

## 참 고 문 헌

- 강길호, 김현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한나래, 1996
- 곽남신, 『한국 현대 판화사』, 재원, 2002
- 한자경, 『자아의 탐색』, 서광사, 1997
- 사회와 철학 연구회, 『세계화와 자아 정체성』, 이학사, 2001
- 정문길, 『소외』, 문학과 지성사, 1984
- 정문길, 『소외론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94
- 한자경, 『자아의 탐색』, 서광사, 1997
- 최대만, 『미술과 도시』, 열화당, 1995
- 최윤영, 『7개의 키워드로 읽는 사회와 건축 공간』, 시공문화사, 2003
- 최병상, 『조형』, 창미서관, 1993
- A.야페, 『미술과 상징』, 이희숙 역, 열화당, 1995
- F.프로시나 & C.헤리슨, 『현대 회화의 원리』, 최기득 역, 미진사, 1998
- 롤로메이,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 이태동 역, 문예출판사, 1982
- 장 보드리야르, 『사물의 체계』, 배영달 역, 백의, 2000
- 고충환, <현대판화의 개념과 정체성>, 미술세계, 1997년 9월호
- 고충환, <판화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월간미술, 1998년 3월호
- <유니폼을 통한 동시대 사회 읽기>, Cover Story展 전시도록, 2004
- 김경운, 「하이퍼리얼리티, 도시의 삶, 그리고 텍스트」,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 권소진, 「도시 이미지를 통한 익명성 표현」,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9
- 방성호, 「현대인의 소외와 불안을 표현한 이미지 연구」, 경희대: 석사학위논문, 2004
- 임모나,  
「Magdalena Abakanowicz의 작품연구」, 강릉대: 석사학위논문, 2002
- <http://www.kcaf.or.kr/art500/gubonju/main.htm>

# ABSTRACT

## Discontinuity of Understanding in Contemporaries

Seo, Hyo jung

Dept. of Printmaking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research thesis is based on one of my own works produced during graduate school from 2003 to 2004, especially the one prior to application for M.A. degree thesis as well as the improved and revised one after the application.

Rapid progress of our modern society, apparently and materially, has led the world to have more fierce and infinite competition in an economically united block.

Maximizing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communication & scientific civilization, expanding our modern society with rapidity, and accelerating the complexity altogether have been bringing about a big change in our internal awareness. And our contemporaries living in this fierce society seem to be getting

more and more unstable due to an alienation of human being caused by their anxiety of failure, loss of identity, and spread of egoism.

With this rapid development, our cities have been fixed in visual images generalized in an outpouring mass media, products, and artificial city buildings, which are recognized as modern environment.

In this work, I tried to review the modern life, in particular, based on 'city' which generates a series of problems in the rapid-changing modern society such as 'loss of identity', 'anonymity', 'discontinuity of understanding', and 'alienation'.

Solitary and isolated human image of city is symbolically represented here in my work by combining a cubic shape of city and a body shape of human being, implying a typical pattern of fast-changing modern society.

Based on these, I studied an image of moderner in our mass society, and how these images are shaped and revealed in my work.